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의 관계

박동영^{1*}

¹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 Among Parenting Stress,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Infant's Mothers

Dong-Young Park^{1*}

¹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aegu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 정도를 파악하고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K시의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재원하고 있는 3-6세 아동의 어머니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9.0 통계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양육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2.32점이었고, 상태분노 1.36점, 특성분노 1.85점으로 나타났다. 분노표현 유형의 하위척도인 분노표출의 평균 점수는 1.84점이었고, 분노억제 1.75점, 분노조절 2.31점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분노조절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상태분노는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정적상관관계, 분노조절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특성분노는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정적상관관계, 분노조절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표출은 분노억제와 정적상관관계이고 분노조절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상태분노, 특성분노가 분노표현 유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제공뿐 만 아니라 어머니의 분노를 조절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infant's mothers parenting stress, anger and anger expression patterns: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205 among the 3 to 6 years old infant's mothers who attend to the three kindergartens and seven children's house.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a self-report questionnaire, PSI(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by Abidin), Anger and Anger-expression patterns. Regression analysis was the statistical method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in the infant's mothers parenting stress, state-trait anger and anger out/i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infant's mothers parenting stress, state and trait anger were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mother's anger expression patterns.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arental education program are necessary which a infant's mother can express positively about anger and decrease parenting stress.

Key Words : Infant's Mothers, Parenting Stress, Anger and Anger Express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확대되고 여성

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역할은 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교신저자 : Dong-Young Park

Tel: +82-10-8541-8217 e-mail: buddy8255@naver.com

접수일 11년 12월 21일

수정일 (1차 12년 01월 12일, 2차 12년 02월 09일)

게재확정일 12년 03월 08일

집중되어 왔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의 부담감은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에게 비난을 많이 하는 등 아동의 발달 및 부모 자녀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유아기는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운동, 인지, 언어능력과 더불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신뢰감이나 사회성이 다듬어지는 시기이다[2]. 말을 배워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에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며 행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부모가 제한을 주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점점 확장되면서 보호와 돌봄에 대한 요구가 큰 반면에 반항적 행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동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 시기 동안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권위적, 거부적, 통제, 방임 등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면 아동은 위축, 불안, 우울, 주의집중 문제, 과잉행동, 산만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또한 어머니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행동을 하며[4] 스트레스의 증가로 불안이나 부모 역할에 대한 좌절, 슬픔 및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감정은 공격성이나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5].

한편 분노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중 대표적인 정서반응으로 Kim과 Ko(2005)는 기혼여성의 분노유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자녀양육문제를 지적하였다[6]. Abidin(1990)은 자녀를 훈육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폭발하게 된다고 하였다[7].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처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분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처벌의 의미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성적인 행동보다 감정적인 행동의 표출로 이어져 아동에게 신체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8]. 이렇듯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 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로 이어져 유아의 성장발달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분노는 개인에 따라 표현방식이 다르며 표현방식에 따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정도가 높았으며[9] 분노를 심하게 표출하는 경우 공격성이 높아지며 분노표출이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타인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10].

Abidin(1990)은 유아의 생애에서 첫 5년은 유아의 사

회적, 정서적 발달과 어머니-자녀의 관계형성에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양육스트레스는 다른 시기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그러나 자녀양육은 사회적 기대와 부담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부모 자녀관계는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특히 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 분노표현 유형을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분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Choung(2010)의 초등학교생과 Kim(2009)의 중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12], [13]와 Tai(2008)의 시각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14]가 있으나 일반 가정에서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 분노표현 유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분노, 분노표현 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분노, 분노표현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분노표현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분노표현유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은 어느 정도인가?
- 둘째, 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넷째, 유아 어머니의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 분노 표현 유형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K시 소재 유치원 3기관과 어린이집 7기관을 통해 재원하고 있는 3세에서 6세 아동의 어머니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배부는 연구자가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원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배부하였으며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응답한 질문지는 다시 원아를 통해 가져오게 하여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G 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독립변수 3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을 선정하였을 때 표본 수는 77명으로 산출되었다. G power program에서 77명이 산출 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인 205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2 연구도구

2.2.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15]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김동희(1997)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16]. 이 도구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한 부모용 자가 보고식 질문이다. PSI는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부모 영역)12문항, 부모와 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부모-자녀관계 영역)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아동영역) 11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2.2.2 분노

· 상태분노

분노 유발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근육긴장 및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를 수반하면서 경증의 초조함이나 흥분에서부터 격렬한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도의 주관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

[17].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Krasner, Solomon(1988)이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을 동일한 척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 :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18]를 전점구(1996)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STAXI를 사용하였다[19]. 이 도구는 검사 당시 분노감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분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0로 나타났다.

· 특성분노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경향으로 주어진 상황을 좌절이나 귀찮은 것으로 인지하는 개인의 성향으로 [20]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Krasner, Solomon(1988)이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을 동일한 척도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 :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전점구(1996)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STAX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감정을 자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취급받는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다.

2.2.3 분노표현 유형

Spielberger, Krasner, Solomon(1988)이 제작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 :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전점구(1996)가 번안하고 수정한 표준화된 한국판 STAXI의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분노조절(anger-control)의 3개 차원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을 측정하는 각 8문항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분노표출 .74, 분노억제 .76, 분노조절 .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출 .72, 분노억제 .76, 분노조절 .78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9.0 통계 program에 의해 전산처리 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은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 등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어머니 나이, 학력, 직업, 자녀 나이, 성별, 출생순위, 월평균 소득, 가족지지 등을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나이는 31-35세가 40.5%, 36-40세가 37.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38.5%, 대졸 29.2% 이었으며 직업은 '없다'가 61.5%, '있다'가 38.5%로 나타났다. 자녀나이는 48개월 이하가 34.6%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자가 54.6%로 많았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53.7%, 월평균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4.1%, 가족지지는 '보통이다' 5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Table 1].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N=205)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어머니 나이	30세 이하	25	12.2
	31-35세	83	40.5
	36-40세	77	37.6
	40세 이상	20	9.7
학력	고졸이하	57	27.8
	전문대졸	79	38.5
	대졸	60	29.2
	대학원졸	9	4.5
직업	무	126	61.5
	유	79	38.5
자녀 나이	36개월 이하	51	24.9
	48개월 이하	71	34.6
	60개월 이하	66	32.2
	60개월 이상	17	8.3
성별	남자	112	54.6
	여자	93	38.5
출생순위	첫째	110	53.7

월평균 소득	둘째이상	95	46.3
	200만원 미만	39	19.0
	200-300만원 미만	70	34.1
	300-400만원 미만	50	24.4
가족지지	400-500만원 이상	46	22.5
	많이 도와주었다	65	31.7
	보통이다	106	51.7
	도와주지 않는다	34	16.6

3.2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 정도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2.32점이었고, 상태분노 1.36점, 특성분노 1.85점으로 나타났다. 분노표현의 하위척도인 분노표출의 평균 점수는 1.84점이었고, 분노억제 1.75점, 분노조절 2.31점으로 나타났다[표 2][Table 2].

[표 2]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
[Table 2] Mean Scores of Parenting Stress, Anger and Anger expression(N=205)

분류		M±SD	Min	Max
양육스트레스		2.32±0.38	1.00	3.64
분노	상태 분노	1.36±0.40	1.00	3.50
	특성 분노	1.85±0.48	1.00	3.70
분노 표현	분노 표출	1.84±0.38	1.00	3.75
	분노 억제	1.75±0.43	1.00	4.00
	분노 조절	2.31±0.44	1.00	3.8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는 직업($t=2.179, p<.05$), 월평균 소득($t=2.207, p<.05$), 가족지지($F=7.062,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어머니 나이, 학력, 자녀 나이, 성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태분노는 가족지지($F=6.483,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분노표현 유형은 출생순위($t=-2.044,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어머니 나이, 직업, 학력, 자녀 나이, 성별, 월평균 소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3][Table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
 [Table 3] Parenting Stress, Anger and Anger express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분류		양육스트레스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현유형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직업	무(n=126)	2.35± 0.39	2.179 (.03)	1.35± 0.43	1.332 (.184)	1.89± 0.49	1.095 (.274)	0.25± 0.36	.832 (.406)
	유(n=79)	2.25± 0.37		1.29± 0.36		1.76± 0.46		0.24± 0.28	
자녀 출생 순위	첫째 (n=110)	2.31± 0.38	.079 (.094)	12.97± 3.49	-1.266 (.207)	17.77± 4.84	-.984 (.326)	6.55± 5.89	-2.019 (.045)
	둘째이상 (n=95)	2.31± 0.39		13.59± 4.60		18.40± 4.86		6.85± 6.85	
월 평균 소득	300만원미만 (n=109)	2.36± 0.36	2.207 (.028)	1.36± 0.41	1.380 (.169)	1.77± 0.47	-1.33 (.184)	0.25± 0.04	-0.233 (.816)
	300만원이상 (n=96)	2.56± 0.41		1.29± 0.39		1.85± 0.49		0.25± 0.03	
가족 지지	많이 도와 주었다(n=65)	2.19± 0.38	7.062 (.001)	1.23± 0.26	6.483 (.002)	1.78± 0.46	.931 (.395)	0.24± 0.12	1.318 (.269)
	보통이다 (n=106)	2.36± 0.34		1.33± 0.03		1.79± 0.04		0.25± 0.21	
	도와주지 않는다(n=34)	2.40± 0.46		1.49± 0.08		1.89± 0.60		0.25± 0.24	

3.4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 분노표현 유형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상태분노($r=.376, p<.01$), 특성분노($r=.187, p<.01$), 분노표출($r=.274, p<.01$), 분노억제($r=.432,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분노조절($r=-.147, p<.05$)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표출은 분노억제($r=.455,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분노조절($r=-.230, p<.01$)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노억제는 분노조절($r=.097, p<.05$)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4][Table 4].

3.5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분노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스트레스와 상태분노 및 특성분노가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범위가 0.776~0.885, VIF값이 1.147~1.28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수정된 결정계수(Adj-R²)값이 0.276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 변인들의 분노표현유형에 대한 설명력은 27.6%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양육스트레스, 상태분노, 특성분노가 분노표현유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면 특성분노($t=6.248, p<.01$)가 가장 높았으며 그

[표 4]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 유형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Stress, Anger and Anger expression (N=205)

구분	양육 스트레스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표출	분노 억제	분노 조절
상태분노	.376**					
특성분노	.187**	.353**				
분노표출	.274**	.426**	.593**			
분노억제	.432**	.411**	.437**	.455**		
분노조절	-.147*	-.089*	-.131*	-.230**	.097*	

** p<.01 * p <.05

다음으로 상태분노($t=3.920, p<.01$), 양육스트레스($t=2.411, p<.01$) 순이었다[표 5][Table 5].

[표 5]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 분노 요인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Anger expression

변인	변수	B	SE	Beta	t	p
분노 표현	(상수)	28.794	2.189		13.097	.000
	양육 스트레스	.062	.026	.134	2.411	.017
	상태분노	.361	.092	.228	3.920	.002
	특성분노	.452	.072	.343	6.248	.011
Adj R ² : 0.276 F= 35.890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분노가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32점으로 나타나,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21]의 2.7점보다 낮았고 [22]의 2.18점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자의 표집지역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반화가 가능한 표집방법을 통하여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여건, 주거환경, 어머니의 취업, 가족지지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3][24].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직업, 월평균소득, 가족지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분노는 상태분노가 평균 1.36점, 특성분노 1.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상태분노 1.2점, 특성분노 1.88점을 보고한 [2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태분노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정도로 여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적 성숙으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기 쉬운 학령기 후기 또는 청소년기 학생에 비해 낮은 정도의 상태분노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나이가 들며 따라 상황에 대한 분노의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26]는 문헌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성분노는 특정한 유발요인 없이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분노로 Bandura(1977)는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화난

감정을 어떻게 자제하고 표현하는지가 학습된다고 하였다[27]. Lee와 Bang(2008)은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가 개인보다는 집단이 중요하고 가부장적 영향의 잔재가 남아 있어 여성은 감정표현이 억압되는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28].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며 드러내지 않고 복종해야 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스트레스 사건 혹은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속에 항상 분노가 내재되고 이러한 분노가 특성분노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노표현 유형은 분노조절 2.31점, 분노표출 1.84점, 분노억제 1.75점으로 나타나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노표출 1.56점, 분노억제 2.11점으로 보고한 [29]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분노표출 1.64점, 분노억제 1.91점, 분노조절 2.59점으로 제시한 [30]와 유사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분노조절(2.31)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역기능적인 분노표출(1.84), 분노억제(1.75)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역기능적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보다는 분노조절을 많이 사용하여 분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분노해소에 도움이 되어 다행이지만 분노표출은 [29], [30]의 1.64점, 1.56점과 비교하면 높은 결과이다. 이는 표출형 표현방식은 분노수준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며 특성분노가 높은 집단이 분노를 경험하는 횟수도 더 많고, 더 큰 강도로 경험한다는 [3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분노, 분노표현유형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 분노억제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분노통제는 양육스트레스,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출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대상자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이 나타나며 동시에 분노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과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때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이 높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분노조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3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정도가 높다는 [3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과 갈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감정이 유발되며 부모의 분노감정 조절 능력은 양육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황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어머니는 자신의 분노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분노표현 유형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와 상태분노, 특성분노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노표현 유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로 특성분노 34.3%, 상태분노 22.8%, 양육스트레스 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27.6%로 나타났다. [30]는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3%(억제 9.4%, 표출 1.7%, 조절 3%)의 설명력을 보여 양육스트레스가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고 [34]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표출 48.7%, 억제 27.8%, 조절 1.5%의 설명력을 보여 분노가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분노감정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분노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표현된다면 난폭한 말이나 행동 같은 부적절한 분노표현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분노조절 능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제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분노를 자녀에게 표출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분노조절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한적인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가 K시의 일부지역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좀더 신뢰적인 표집방법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대상자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추후연구에서는 심층면접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양육스트레스와 분노표현 유형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1] Webster-Stratton, C.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 of child deviance: Role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1988.

[2] J. H. Lee, "Maternal Caretaking Behavior of Primiparou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 2,

No. 1, 5-12, 1995.

[3] Y. S. Moon., J. S. Ha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 caring behavior and child behavioral problem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5, 161-176, 2002.

[4] Murata, J. " Family stress, social support, violence, and son's behavior",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6, 154-168, 1994.

[5] McCubbin, H. I. & Figley, C. R. "Stress and the family : Coping with normative transitions". Brunner/Mazel, Inc, 1983.

[6] Y. S. Kim., I. N. Ko, "A Study of the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Kyungsung university Institute of the Humanities*, vol 1, 35-80, 1995.

[7] Abidin, P. R.,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Psychology*, 19, 298-301, 1990.

[8] Adler-Baeder, Francesca Margot. "Explaining Physical Child Abuse by Biological Mothers, Biological Father, and Stepfather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1999.

[9] Y. I. Ko., "A study of Psychological Model on Anger",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vol. 28, No.1, pp. 134-164, 1993.

[10] Deffenbacher, J. L., & Hazaleus, S. L., "Relaxation and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pp. 222-226, 1985.

[11] Abidin, R. R.,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12] E. H. Choung,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Anger Ex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10.

[13] H. J. Kim, "The Effects of Anger Control Program upon the Anger level, child-rearing stress and parent-efficacy: Using Movie based Anger Control Program and Ordinary Anger Control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09.

[14] Y. S. Tai, "The Effects of a REB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Levels of Aggression, Anger, Parent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others of Blin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2008.

[15] Abidin, R. R., "Parenting Stress Index : Professional manual(3rd Ed)", Odessa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0.

- [16] D. H. Kim., "A Comparative study of parenting stress between mothers of normal neonate and low birth weight neon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97.
- [17] Spielberger, C. D.,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scale", Port Huron, MI: Sigma assessments system, 1996.
- [18] Spielberger, C. D., Kransse, S. S., & Solomon, E. P.,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s.) Individual difference", Washington, DC: Hemisphere.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 203-222, 1988,
- [19] K. K. Chon., "Development of the korean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 J Rehabil Psychol, 3(1), pp. 53-69, 1996.
- [20] Spielberger, C. D.,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scale", Port Huron, MI: Sigma assessments system, 1996.
- [21] M. S. Kim.,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The case of those with preschool and school-ag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5.
- [22] G. Y. Cho., Y. S. Eo., & M. S. Ah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rearing stress and Rejective Attitude in preschool children's Mother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Vol. 16 No. 2, pp. 136-143, 2010.
- [23] Howe, D., "Singles, african-american, low income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and stress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statu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73-877, 1994.
- [24] H. J. Lee,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maternal stress and stress behaviors of thei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1997.
- [25] I. L. Choi., "Anger expression types and mental health in Middle-aged Women", J Korean Acad Nurs Vol. 39 No. 4, pp. 602-612, 2009.
- [26] Barefoot, J. C., Beckham, J. C., Haney, T. L., Siegel, I. C., & Liphus, I. M., "Age difference in hostility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8(1), pp. 3-9, 1993.
- [27] Bandura, A.,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1977.
- [28] W. K. Lee, H. J. Bang,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adult women, mindfulness, self-compa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sympto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Vol. 21 No. 4, 127-146, 2008..
- [29] H. S. Park., "Effects of parent's stress & style of Anger Expression on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008.
- [30] E. H. Choung.,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Anger Expression-by Focusing on Mothers of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earl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10.
- [31] Y. K. Chae., " Verification on the model of expression modes and moderating effect of adolescent's ang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2001.
- [32] S. H. Ko., "The relation among a mother's anger expression mode, parenting stress and an child's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2008.
- [33] P. S. Lee., J. N. Sohn., Y. M. Lee., E. Y. Park., & J. S. Park., "A Correlational study among Perceived Stress, Anger Expression, and Depression in Cancer Patients", J Korean Acad Nurs Vol. 35 No.1, pp. 195-205, 2005.
- [34] J. H. Nam.,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Traits and Anger Ex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Trait Ang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0.

박 동 영(Dong-Young Park)

[정회원]



- 2006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09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과정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의생명공학